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기 민석(침신대)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 '히잡한 남편', 사라의 쓴웃음 73

본 논문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창 12-25)를 사라의 시각에서 읽는 연구이다. 특히 그 이야기의 구조를 사라의 입장에서 나누는 독특한 시도를 한다. 결론적으로 여성주의적 비평을 통한 성서 읽기도 정경적 읽기에 부합할 수 있다는 한 예를, 본 논문의 '사라의 읽기'와 부조리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상(像)을 통해 입증하려한다.

목 차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3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 '허접한 남편', 사라의 쓴웃음

기 민석 | 칙신대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젠 늙어서 하지도 않아, 영감도 늙었고”(창 18: 12)¹⁾

1. 사라를 위하여 읽기

성서에 대한 정경 비평적 읽기는 역사-문헌적 읽기에 지쳤던 교회의 입장에선 반가운 물결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성서 연구는, 여하간 역사-문헌 비평이 남겨 놓은 편린들까지도 주어 챙겨서 '정경적' 의미를 생산하도록 강요(?)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경적 읽기라는 것이 성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각 신앙 공동체들의 전통을 옹호하는 것에 치우치는 처지이기에,²⁾ 각종 이데

1) **בְּרִיחָהּ**는 성적인 쾌락을 의미한다(BDB 참조).

2) 이러한 비평에 주의를 기울인 다음을 참조하라. John Barton, *Reading the Old Testament - Method in Biblical Study*, (Revised and Enlarged)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89-103쪽.

올로기적 비평들은 다소 보수적 전통 속에 등한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성서의 세계 속에 '소외'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여성주의(feminist) 성서 읽기는, 소위 보수적 교회 전통 속에 많이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성주의 성서 읽기가 성서의 세계 속에 여성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참여하였는가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 가부장적인 성서의 세계 속에 어떻게 여성이 유린당하였는지를 무척 견고하면서도 신랄하게 호소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여성주의 비평은 여성의 시각에서 성서의 세계를 소위 '깨어진 세계'(a broken world)로 매우 잘 그려주고 있다.³⁾

과연 정경적 성서 읽기는 이와 같은 여성주의 비평을 소외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성주의 비평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서의 깨어진 세계는 교회의 신학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일까?⁴⁾ 본 논문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창 12 - 25장)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인 사라의 시각에서 읽어 나가려 한다. 물론 다분히 문학적이고, 독자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⁵⁾ 사라의 입장에서 그려내는 여성주의 읽기는 많은 저자들에 의해 많이 시도되어 왔으나, 저자는 사라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의 구조를 나누는 독특한 시도를 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그 구조가 여성주의 입장에서 어떤 '사라'를 전달하여 주는지, 더 나아가 그렇게 그려진 '깨어진 세계'가 어떤 정경적 의미가 있는지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소외된 여성의 시각을 통해 드러난 '믿음'(faith)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을 수 없는'(unfaithful) 행적과 그 남편이 따르는 야훼 하나님의 전권적 횡포가 정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말하여 볼 것이다.

2. 사라에 의한 읽기

3) 이에 대한 수많은 문헌들이 있지만 간략한 이해를 위하여, 스티븐 헤이네스,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역사비평에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거쳐 해체주의 비평까지」, (김 은규/김 수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에 기고한 Donna Fewell의 여성주의 비평에 대한 글을 참조하라. 더불어 이 분야의 가장 클래식한 작품인 필리스 트리블,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 성서의 여성 신학적 재조명」 (최 만자 역), (서울: 전망사, 1989) 을 감상하라. 원제는 P. Tribble의 *Texts of Terror*이다.

4) 같은 문제점을 고민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이 경숙, 「구약성서의 하나님, 역사, 여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의 제 12장 '여성 해방과 성서 해석', 268-292쪽.

5) 사라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기에, 필자의 글이 논문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구어적 문체를 많이 사용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성서의 많은 여성들은 남자들의 이야기에 종속되어 있다.⁶⁾ 물론 꽤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룻이나 에스더의 경우도 있으나, 날카로운 여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찌뚱하다. 룻은 그 위대한 (바람둥이) 다윗의 증조모였다는 것에 룻기의 결말 부분을(룻 4: 17-22) 빼앗겨 버렸고, 에스더는 왕 앞에 '예쁜' 여성이기에 성공하였던, 그래서 여자는 예뻐야 하나님 일도 크게 한다는 성서적 확증을 남겨주고 말았다.

사래/사라도 아브라함 이야기의 부속물이다. 창세기는 11장을 끝으로 소위 그 원 역사적 단원을 마치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에 종속적인 캐릭터이다. 실제 그 약속은 구약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구약의 척추와도 같은데, 그 핵심은 '자손'과 '땅'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확인하셨으며, 후에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끌어낼 때에도 이 약속을 근거로 설득하였고, 여호수아가 위험천만한 가나안 침공을 감행한 이유도 모두 이 약속 때문이며,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이 약속을 붙들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약속의 첫 번째 주자가 아브라함인데, 그의 이야기가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 약속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 포섭되어 있는 한 여인이 바로 사래다. '자손'과 관련되어 있는 그 약속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는 무척이나 불행히도 '자손'을 이룰 수 없는 여인의 캐릭터를 부여받았다(창 11: 29-30). 즉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처럼 자손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긴장 조성을 위해 설정된 인물이 바로 '불임'의 아내 사래인 것이다.

사래는, 약속을 받고 누리는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하나님 주연의 드라마에 그 극적 전개를 위하여 비극적 설정을 부여받은 여인이다.⁷⁾ 그녀의 암울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는 바로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과 그 남편이 열심히 믿고 따르는 야훼 하

6) 참조 J. 체릴 액섬, 「산산이 부서진 여성들 - 페미니즘 비평으로 본 성서의 여성들」 (김 상래들역), (서울: 한들, 2001), 17-25쪽.

7) 여성주의 성서 읽기에서도 사라는 다소 소외되어 있다. 대부분 사라는 하갈과의 관계 속에 설정되어 연구되며, 하갈이 여기에선 심정적 동정을 얻는 편이다.

나님의 알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 ‘암울한’ 요소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규칙적이고 조직적으로 패턴화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군(cycle)이 담긴 창 12 - 25장을 사라의 입장에서 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크게 이 이야기는 사라가 아들이 없었을 때와 아들이 있었을 때로 구분된다. 아브라함 이야기 속의 사라는 ‘자식’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인생이 구분된다:

〈아들이 없을 때의 이야기: 12-19장〉

- 1) a1 약속(12: 1-9): 남편이 받은 약속(자손과 땅)
 - b1 사라의 굴욕(12: 10-20): 남편이 죽을까봐 자기를 누이라고 속임
 - c1 영웅담(13: 1 - 14: 20): 롯의 구출과 멜기세덱 이야기
- 2) a2 약속(15장): 하나님과 남편간의 계약
 - b2 사라의 굴욕(16: 1-6): 여종 하갈을 남편 소실로 주고 멸시받음
 - c2 영웅담(16: 7-16): 쫓아낸 하갈을 하나님이 위로
- 3) a3 약속(17장): 하나님과 계약(이름이 바뀜)
 - b3 사라의 당혹(18: 1-15): 아들을 준다하여 웃었다가 혼남
 - c3 영웅담(18: 16 - 19: 38):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재

〈아들이 있을 때의 이야기: 20-25장〉

- 4) b4 사라의 굴욕(20장): 남편이 죽을까봐 자기를 누이라고 또 속임
 - c4 영웅담(21장): 이삭 출생, 하갈 추방, 우물 분쟁
- 5) b5 사라의 당혹(22-23장): 이삭을 제물로 바칠 뻔함(사라의 죽음)
 - c5 영웅담(24-25장): 이삭의 결혼

사라에 의한 아브라함 이야기 읽기는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아들이 있을 때와 아들이 없을 때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약속의 성취 전과 성취 후의 이야기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성취 전 1) 2) 3)에서는 ‘a 약속’의 요소가 등장하지만, 성취 후인 4)와 5)에서는 그 요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1)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구성 속에 ‘b 사라의 굴욕/당혹’ 에피소드가 매우 필수적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라의 굴욕과 당혹을 담은 에피소드들이 모두 이 이야기의 주요 캐릭터인 아브

라함과 하나님을 몹시 부조리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기적으로 탄생한 이삭도 순조롭게 결혼하여 그 후손도 예비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 이야기의 영웅적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위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b 부분은 두 주인공을 모두 부조리하게 - 적어도 사라라는 여인에게는 -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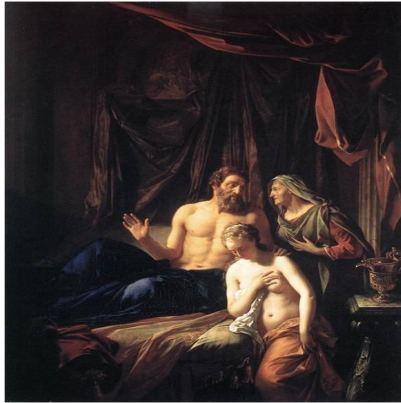
전반부 사례가 '아들이 없었을 때'의 이야기 속 'a 약속'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특별히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한다. 당연히 'a 약속' 부분들 속에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캐릭터는 '영웅'이다. 그러나 이 영웅적인 인물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역사적 장면 바로 뒤에는, 남자로서 더욱이 사라의 남편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치졸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역설적으로 두 번이나 등장한다(b1, b2).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까봐 아내에게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라고 말하는 모습(b1)은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남편 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 b1에서 사라가 당한 성적, 언어적 폭력은 어느 여인에게든 그러했을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성적,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⁸⁾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관습대로⁹⁾ 여종인 하갈을 받아들인 에피소드는 아내 사라와 후처가 된 하갈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b2, c4), 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지 않는' 남편 상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미지와 사라의 굴욕은 교회와 역사의 전승 속에도 전달되는데, 그 흥미로운 예를 들자면, 판데르 베르프트(Adriaen van der Werff, 1659-1722년)가 b2의 에피소드를 그린 다음

8) 이러한 고통을 '끔찍하게' 잘 논의한 다음의 글을 보라. Fokkelien van Dijk-Hemmes, "Sarai's Exile: A Gender-Motivated Reading of Genesis 12.10-13.2", Athalya Brenner (ed.), *A Feminist Companion to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3), 222-234쪽.

9) 창 16: 2과 30: 1-3,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146이 그 고대적 증거 자료라 할 수 있다. "만약 한 남자가 여인과 결혼하여, 그 여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그 여종이 아이를 가지면, 그 여종은 그 아내와 동등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여인은 여종을 팔지 못한다; 다만 그 여종에게 노예의 표식을 할 수 있고 노예로서 계수한다.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72쪽; 이종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서울: 삼육대학교 출판부, 2008), 132쪽.

작품 속에 여실히 드러난다:



이 그림이 b2 본문을 회화하고 캐릭터 간의 상호성을 해석하는 저력은 매우 뛰어나다. 아브라함 옆에 두 여인이 있다. 그림 오른 편에는 그의 아내 사라가 있고 아래에는 아내가 동침하라고 데려온 여종 하갈이 있다. 아브라함과 '남성'들이 보기에 두 여인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 화가는 사라를 한 때 아름답다고는 했지만 이제 노쇠하여 여성미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리고, 하갈을 젊고 관능적이고 순응적이어서 남자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그렸다. 사라는 칙칙한 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지만, 하갈은 벌써 반라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침대에 수줍게 앉아 있다.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 받는 남편 아브라함의 반응이 흥미롭다. 벌써 옷은 제쳐버렸고, 마누라 사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탐스러운 여종의 등뒤에서 그의 근육은 - 노인답지 않게 - 불끈거리고 있다. 사라의 제안을 들으면서 좀 미안하여 당혹하기도 했는지, 한쪽 손을 들어올리는 제스처를 하고는 있지만, 그의 또 다른 손은 벌써 하갈의 벗은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 그의 눈빛도 이미 풀어져 있다. 화가가 b2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선명히 드러난다. 이처럼 사라는 역사 대대에 거쳐 이곳 저곳에서 굴욕을 당하였다. 10)

10) 사라는 항상 그 아름다움이 칭송 받고 있지만(창 12: 11), 고대 이스라엘의 전승 속에는 그 아름다움조차도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당혹과 수치를 불러왔다. 그 한 증거를 '창세기 외경'(1QApGen)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람어로 기록된 콤파 문헌인 이 책은 Column 20의 2-7줄에

두 차례의 굴욕 후 다시 한 번 ‘약속’의 장면이 나온다(a3). 이번에 뒤따를 사라의 굴욕은 위의 두 차례와는 다르게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따르는 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미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 아들이 생겼고, 자신은 이미 늙어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한다. 겁에 질려 자신을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덧석 여종 하갈과 한 이불을 덮은 ‘진상’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을 상종치도 않기에, 사라는 이 말을 천막 뒤에서 듣고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만큼이나 ‘소심한’ 이 신은 자신이 웃은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창 18: 13-15):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말했다. ‘저 ... 안 웃었어요 ...’
그가 말했다. ‘아냐. 웃었어.’

하나님의 예언이 하도 황당하여 웃긴 하였지만, 사라는 무서웠다. 지금 히 미미한 여자에 불과한 자신의 교양 없는 실수를 꼬집는 절대자 신 앞에 사라는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신 것일까? 남편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할까 무서워 날 팔아먹었는데, 꾸짖지도 않고 오히려 뒷수습까지 다 해주시지 않았던가.

이 이야기 속에 ‘c 영웅담’은 주요 캐릭터들의 영웅적 이야기가 담겨진 부분이다. 그리고 대부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활약을 담았다.

2)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을 때

이 후반부의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a 약속’의 요소는 필요 없다. 여기에서는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약속이 성취되는 이 후반부는 사라에게도 큰 기쁨이 찾아온다. 그러나 후반부의 이 ‘해피 스토리’가 사라에게 쉽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도 ‘b 사라의 굴욕/당혹’은 필수이다. 다시 찾아온 그 굴욕은 더욱 더 쓰라린 것이었는데, 과거 이집트에

서 무려 다섯 절에 걸쳐 사라의 신체적 아름다움만을 매우 치밀하게 묘사한다. 그녀는 여기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벗겨벗겨져 있으며, 남성 독자들의 눈앞에 여성으로서 감추어야 할 부분까지도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수치를 당한다 - 물론 이것을 사라가 오히려 즐겼을 것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지만.

서 당했던 것(b1)과 똑같은 치욕을 이번에는 그탈에서 또 겪은 것이다(b4). 같은 일을 반복하여 당하니 어이가 없었다. 더욱 남편 아브라함이 파렴치하였던 것은 그의 허접한 변명 때문이었다.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물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다(창 20: 12):

‘정말로 내 이복누이인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되었어요.’

실제로 사라는 그의 이복누이이기 때문에,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 거짓은 아니라는 치졸한 변명이요, 남자가 그의 여자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남자답지 못한 행위이다. 아내는 끔찍한 성폭행을 당할 위기를 맞았는데, 자기는 그저 자신의 속임수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이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치욕이 있는 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전개된다.

전체 시나리오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기적적인 약속 성취가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사라는 그 ‘기적을 위해’ 불임 여성으로 등장하는 조역일 뿐이다. 주로 아브라함하고만 상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편잔을 들었고, 남편으로부터는 굴욕뿐이었다. 그러나 이 둘 간의 드라마에 사라도 잠시나마 봄날 같은 때가 왔는데,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웃다’라는 뜻의 ‘이삭’으로 아들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브라함이 고약하게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웃다가 곤욕을 치렀던 일이 생각나 겸연쩍었다. 사라는 얼른 무마하기 위해 또 이렇게 허둥지둥 웃었다(창 21: 6-7):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겠네....
사라가 자식들을 짓먹이겠다고 어느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어.
그가 영감이 다 났는데 글썽 내가 아들을 낳았네.’

이제 이야기가 종결로 치닫는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완결시켜 주는 에피소드가 등장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할 수 있도록 결혼을 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 패턴을 보자면 그런 ‘좋은 일’(c)이 있기 전에는 꼭

사라에게 ‘안 좋은 일’(b)이 터졌다.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았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그 유명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화가 벌어진다.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지만, 사라에게 하나님은 옛적 자기가 웃었던 것을 집요하게 꼬집었던 당혹스러운 분이 시기도 하다.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 그 분이, 이번에는 정말 크게 지나치셨다.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다. 자력으로는 가지지도 못할 아이를 주었으니 이제 맘대로 가져가시겠다는 건가? 지난번 웃은 것에 대한 벌일까? 차라리 그 때 벌을 주시지... 참으로 잔인하다. 이 원수 같은 남편은 제 정신이 아닌지 정말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충격 속에 아직 정신도 못 차리는데,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더니 그냥 ‘쇼’였더라고 한다. 남편의 그 잘난 ‘믿음’을 시험해 본 것 이란다. ‘제 정신이 아닌 듯한’ 남편은 이 일로 인해 ‘과격함’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송을 받는다(창 22: 15-19). 최악의 당혹함을 겪어서인지, 사라는 이 일을 겪은 후에 죽는다. 이 최악의 당혹함 이후 마지막 영웅담은 아들 이삭의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이다. 아들의 결혼도 보기도 전에 사라는 죽고 말았다. 사라는 전체 이야기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남편과 미궁의 하나님으로부터 굴욕과 당혹, 충격을 당하였지만,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고의 신앙 간증으로 여기며 지금까지 기리고 있다. 11)

사라의 덕이 거의 유일하게 언급되는 것도 그녀가 죽고 난 후이다. 결혼할 때에 내비친 그 아들 이삭의 그리움 속에 그녀는 이렇게 그려진다(창 24: 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남편과 하나님으로부터 겪은 것이 그녀의 거친 일생이었지만, 다행히 아들의 애잔한 그리움은 사라가 누구였는지 그 마지막 희을 잘 그어주어 무척 다행이다. 이 한 구절이 - 사라가 아내로서 우주 안에선 보잘것없

11) 이 사건을 중심으로 사라의 소외를 다룬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이 영미, “성서주석과 해석의 윤리: 창 22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30집(2008), 10-30쪽.

는 여인이었지만 - 그녀는 만인의 연인 '어머니'였다고 전해준다.

3. 사라의 읽기

이제 사라는 잊고, 지금까지 살펴 본 '사라의 읽기'가 던져주는 문제점을 논의하여 보자. 본 논문에서 '사라의 읽기'로 대표한 여성주의 비평은 성서가 보여주는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가 여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깨어진 세계'(a broken world)인지 실감나게 보여준다.¹²⁾ 이런 당혹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사라의 읽기'는 성서에 대한 낭만주의적 이해에 길들여진 신앙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사라의 굴욕과 당혹을 통해 드러난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부조리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다.

1) '영웅 죽이기'

우선 치졸하고 허접한 남편 아브라함의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다. 아들을 잡아 바치려 했던 그 믿음은 접어두고라도, 아브라함은 소위 '아브라함 전승의 종교'(Abrahamic Religions), 즉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의 꼭대기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의 영웅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도 강렬하게 들려준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영웅 죽이기'의 일환이다. 성서는 그 영웅들의 인간적 결점을 늘 적나라하게 노출한다. 노아의 음주 버릇(창 9: 20-27), 요셉의 철없던 소년기(창 37: 5, 13), 모세의 살인 도피(출 2: 14-15) 등이 이에 속하며, 인격적 장애가 있는 듯한 야곱, 여성 편력으로 유명한 다윗과 솔로몬 또한 두 말 할 것 없다.

이러한 '영웅 죽이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 속에 펼쳐지는 성서의 역사는 그 일에 참여한 인간의 자질이나 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경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부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인간에게 약속을

12) 김 재구는 그의 논문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제30집(2008), 31-51쪽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긍정적'으로 논하며 리브가와 톱을 탐구하였다. 역시 여기에서도 사라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주신 것,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 모두 전적으로 그 '약속하심' 때문이지, 그 인간의 자질(merit)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일을 저질러도(b1, b4), 야곱의 인격이 꽤 먹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신학적 의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위의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의 치졸한 인간적 약점을 드러내는 b1과 b2는 모두 아브라함의 특권적 위치를 부각할 수 있는 약속 a1과 a2를 바로 뒤따른다. 이와 같은 흐름은 자칫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특권적 이미지를 상쇄하며, 결국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임이 강조된다.

2) 신의 부조리와 정경의 회의주의

다음, '사라의 읽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모호성을 생각해 보자. 두 차례(b3, b5)에 걸쳐 나타난 알 수 없는 하나님은 그의 절대자적인 권위에 의해 사실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사라의 읽기'가 암시할 수 있는 절대자의 전권적 행사에 대하여 인간은 - 더욱이 사라는 - 아무런 항거를 할 수 없는 것일까? 정경으로서의 성서는 윤리적 유일신관만을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것일까?

구약 성서의 많은 부분은 사실 윤리적 유일신관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이며,¹³⁾ 특히 많은 저변을 확보하고 있는 신명기적 신학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 반-신명기적 사상과 더불어 윤리적 야훼 유일신 사상에 나름대로 항거하는 '회의주의'적 공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회의주의 사상이 대표적으로 집결된 부분이 특히 욕기나 전도서

13) 구약성서에 '천상의회'를 묘사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 심지어 남아있는 다신론적 흔적들까지도 야훼의 유일신적 권위를 옹호하는 데에 적극 차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의 논문, Min Suc Kee,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SOT* 31.3 (2007), 261-262 쪽, 그리고 기 민석, "우가릿 문헌 KTU 1.16.v 와 사 6장을 비교하여 살펴본 이사야의 사명," 엄원식 박사 퇴임논문집 발간 위원회, 「코야마르아도나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2005), 145-163쪽을 참조하라.

같은 지혜 문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문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호성을 지나치게 신정론적으로 옹호하려는 경향은 이미 학계에 낡아 보이기까지 한다. 특히 욥의 경우 욥의 하나님을 그야말로 알 수 없는 미궁의 절대자로 남겨두는 것이 근간의 연구 추세이기도 하다.¹⁴⁾ 이와 같이 회의주의가 당당히 지혜 문헌의 한 편을 차지한다면, 이는 정경 안에, 그리고 성서를 정경으로 믿는 신앙의 내면에 이 회의주의가 정당한 신앙의 공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주의적 관찰이 지혜 문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비록 국내에는 많이 소개되지는 않지만) 많은 성서 전문가들이 널리 인정하는 바이다.¹⁵⁾

구약 정경에 내재하는 회의주의 사상은 윤리적 유일신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신학과 충돌하지만, 더불어 서로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도 형성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정의(正義)를 단순하게만 이해하는 과오를 지적하며, 전통적이고 기득권적인 신학 사상 - 예를 들어 신명기적 사상 - 의 지나친 확신을 경계하게 한다. 절대자 신이 인간의 낭만주의적 시각에 의해 완벽히 규정되고 파악된다면, 그는 더 이상 신이 아닐 것이다. 구약 성서의 야훼가 진정한 신으로 남겨지기 위해서는, 그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해에 의해 파악되어서는 안 되며 - 될 수도 없으며 - 심지어 부조리한, 그러면서도 당당한 절대자로 남겨져야 한다. 욥의 하나님이 그 증거이고,¹⁶⁾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구약 성서 대부

14) 1993년 8월 24-26일에 있었던 제 42회 *Colloquium Biblicum Lovaniense*는 욥기 연구만을 위한 학회로 개최되었고 이때 발표된 논문들이 모여 W. A. M. Beuken (ed.), *The Book of Job*(BETL CXIV),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이 출판되었다. 편집을 맡은 Beuken은 이 책 머리글에서 (vii-viii 쪽) 욥기를 일종의 '회의주의 문학'으로 규정하며, 다른 말로 욥기를 아이러니와 조소주의의 글로 평가하였다.

15) 근간의 대표적 저서로서 D. Penchansky/P. L. Redditt (ed.) *Shall Not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Right? - Studies on the Nature of God in Tribute to James L. Crenshaw*, (Winona, Indiana: Eisenbrauns, 2000)를 참조하라. 기초적 문헌으로는 J. L. Crenshaw (ed.), *Theodicy in the Old Testament*, (London: SPCK, 1983)을 보라.

16) 욥의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밝히지 않으시고 그저 욥에게 절대자적인 권위만 강하게 드러내신다(욥 38-41장). 절대자를 직접 보게 된 경험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압도하여 욥은 무릎 꿇지만(욥 42: 5-6), 독자는 더 부조리한 하나님만 확인한다. 왜냐하면 독자는 왜 욥에게 고난이 내렸는지 잘 알기 때문인데, 독자는 사탄과 어처구니없는 - 적어도 독자의 입장에서 - 내기를 한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욥 1-2장). 물론 신앙적 충정에 의해 독자는 종종 그 내기 사건을 망각해버리기가 일쑤다. 아니면 욥 앞에 도저히 그 내기 사건을 밝히시기가 곤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연민이 있을 수도

분의 전통에 일침을 놓는 전도서 3장 11절, 8장 17절 그리고 11장 5절 또한 마찬가지로 기능을 한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신관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인간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신앙하는 인간이 신앙의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 회의하는 것이 절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구약의 '회의주의'는 지지하여 준다.¹⁷⁾

다시 돌이켜,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타난 영웅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상(像)은 여성주의 비평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라의 읽기를 통해 무척 부조리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이 당혹스러운 관찰은 궁극적으로 정경 자체에 내재하는 회의주의적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간은 절대 영웅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행만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 적어도 여성 사라가 - 심정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울 만큼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절대자 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주의 혹은 '교만'을 견제한다. 이처럼 여성주의 비평을 통한 성서 읽기도 성서에 대한 정경적 읽기에 부합할 수 있다는 한 예를 본 논문의 '사라의 읽기'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아브라함 이야기는 '약속'이라는 절대적 주제를 전개하면서도, 위의 두 가지 기제를 고안해 놓았다. 이 고안된 기제가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라는 무대 위로 이끌려 불구가 되었고, 여자와 아내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처를 입는다. '사라의 읽기'가 정경적 성서 읽기에 일부 기여하기 위하여, 허접한 남편 아브라함과 미스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굴욕과 당혹을 당하였다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인다. 다만 그 작업 속에 일임을 한 사라 자신의 '깨어진 세계'는 접합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다.¹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 앞에서 자신의 권능을 스스로 높이실 때에(욥 38-41장) 그 내기 사건을 끝까지 떠올리는 독자의 심상에는 하나님의 부조리함이 날카롭게 각인된다.

- 1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살전 5: 16-18) 이 신앙적 이상에 현실적 괴리를 느끼지 않을 인간이 과연 있을까?
- 18) 사라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이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라에 대한 색다른 이해를 위해 다음의 여성주의적 문헌들을 참고하라. David Bakan, *And They Took Themselves Wives: The Emergence of Patriarchy in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9); Trevor Dennis, *Sarah Laughed: Women's Voices in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94); Ellen Frankel, *Five Books of Miriam: A Woman's Commentary on Torah*,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6); Joyce Hollyday, *Clothed with the Sun: Biblical Women, Social*

4. 참고문헌

- 기 민석, “우가릿 문헌 KTU 1.16.v 와 사 6장을 비교하여 살펴본 이사야의 사명,” 엄 원 식 박사 퇴임 논문집 발간 위원회(편집), 「코아마르아도나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2005), 145-163쪽.
- 김 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제30집(2008), 31-51쪽.
- 엑섬, J. 체릴, 「산산이 부서진 여성들 - 페미니즘 비평으로 본 성서의 여성들」 (김 상래 들 역), (서울: 한들, 2001).
- 이 경숙, 「구약성서의 하나님, 역사, 여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 영미, “성서주석과 해석의 윤리: 창 22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30집(2008), 10-30 쪽
- 이 중근, 「메소포타미아 법사상」 (서울: 삼육대학교 출판부, 2008).
- 트리블, 필리스,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 성서의 여성 신학적 재조명」 (최 만자 역), (서울: 전망사, 1989).
- 헤이네스, 스티븐, 「성서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역사비평에서 사회과학적 비평을 거쳐 해체주의 비평까지」, (김 은규/김 수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Bakan, D., *And They Took Themselves Wives: The Emergence of Patriarchy in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Harper and Row, 1979).
- Barton, J., *Reading the Old Testament - Method in Biblical Study*, (Revised and Enlarged),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 Beuken, W.A.M.(ed.), *The Book of Job* (BETL CXIV),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 Crenshaw, J. L. (ed.), *Theodicy in the Old Testament*, (London: SPCK, 1983).
- Dennis, T., *Sarah Laughed: Women's Voices in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1994).
- Dijk-Hemmes, F. van, “Sarai's Exile: A Gender-Motivated Reading of Genesis 12.10-13.2,” A. Brenner(ed.), *A Feminist Companion to Genesis*,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3), 222-234쪽.
- Frankel, E., *Five Books of Miriam: A Woman's Commentary on Torah*,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6).
- Hollyday, J., *Clothed with the Sun: Biblical Women, Social Justice, and Us*, (Philadelphia: Westminster, 1994).
- Kee, Min Suc, “The Heavenly Council and Its Type-scene,” *JSOT* 31.3 (2007), 261-262쪽.
- Millett, C. B., *Archetypes of Women in Scripture*, (San Diego, Calif: Lura Media,

Justice, and Us, (Philadelphia: Westminster, 1994); Craig Ballard Millett, *Archetypes of Women in Scripture*, (San Diego, Calif: Lura Media, 1991); Letty Russell (ed.),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Tammi J. Schneider, *Sarah, Mother of Nations*, (Harrisburg, Penn.: Continuum, 2004). 사라의 사제적 기능을 탐구한 다음의 책도 흥미롭다. Savia Teubal, *Sarah the Priestess: The First Matriarch of Genesis*, (Athens, Ohio: Swallow Press, 1984).

- 1991).
- Penchansky, D./P. L. Redditt(ed.), *Shall Not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Right? - Studies on the Nature of God in Tribute to James L. Crenshaw*, (Winona, Indiana: Eisenbrauns, 2000).
- Pritchard, J. B.(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Russell, L.(ed.),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 Schneider, T. J., *Sarah, Mother of Nations*, (Harrisburg, Penn.: Continuum, 2004).
- Teubal, S., *Sarah the Priestess: The First Matriarch of Genesis*, (Athens, Ohio: Swallow Press, 1984).

검색어

아브라함 상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
사라
여성주의 비평
정경 비평
회의주의

투고일: 2009년 1월 26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15일

The Structure of Abrahamic Cycle, 'Bloody-Awful Husband', Sarah's Bitter Laughter

Min-Suc Kee,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present article I will argue that the feminist criticism of the scripture, which has been well neglected in the conservative environment of Christian seminaries, could harmonize with the canonical criticism popularly practised, in contrast, in the same context. I specifically read, in a literary and reader-responding method, the Abrahamic Cycle (Gen 12-25) from the perspective of Sarah, Abraham's first wife. There have been many feminist readings of it from Sarah's point of view, but I, particularly, construct the structure of the cycle from her standpoint. In the end I will argue what picture of Sarah could be drawn in the structure and how the 'broken world', envisaged by Sarah's reading, could have a canonical significance. In other words, I am going to suggest how, above all for Sarah, the 'unfaithful' behaviour of her husband Abraham, 'a man of faith' in irony, and the tyrannical deeds of her husband's God YHWH could be understood as an integrating part of our Canon.

The 'figure' of Abraham and his God in the cycle is read as 'absurd' especially in its feministic reading. This embarrassment in fact corres-

ponds to the scepticism that is being nurtured within the scripture, mainly implied in its wisdom tradition. As the divine history is unfolding, a human being is not supposed to stand as a hero but only God's sincerity carrying out his own promises as a highlight. And, since God is revealed as absurd as hard to be accepted by, at least, Sarah a woman, it challenges our overdosed optimism or 'arrogance' that we are able to 'understand' God. Hence, 'Sarah's reading' could suggest that a feminist reading of the scripture could get along well with the so-called canonical reading of it.

Keywords

Figure of Abraham
Structure of Abrahamic Cycle
Sarah
Feminist Criticism
Canonical Criticism
Scepticism

